



보도시점 2023. 10. 31.(화) 배포 시 배포 2023. 10. 31.(화)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한 ‘전국 일제 방제소독 주간’ 운영

- 2023.11.1.~10.(10일간) 보건소 방제차량과 농장 보유장비 활용 일제 방제 -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매개체인 흡혈곤충 방제를 통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11월 1일(수)부터 11월 10일(금)까지 ‘전국 일제 방제소독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현재 전국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백신항체가 형성되는 3주가 경과 되기 전까지는 비발생 시군까지 럼피스킨병 확산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고, 가용 가능한 지자체 보건소 방제소독 차량과 농장 자체 보유 연막소독기 등 방제장비를 총동원하여 전국 모든 소 사육 농가 약 9만 5천호를 대상으로 일제 방제소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일제 방제소독 기간에는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 흡혈곤충 방제 효과가 좋은 16시~18시에 일제히 실시하며, 지자체 보건소는 방제차량을 활용하여 농장 인근 진입로와 농장 주변 방제소독을 지원하고, 소 사육 농가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연막소독기 등을 활용하여 농장 내부와 축사, 주변 옹덩이 등 흡혈곤충 서식지 대상으로 일제 방제소독에 참여한다.

중수본은 각 지자체 등에 배포한 「축산관계자 럼피스킨병 매개 흡혈곤충 방제요령」을 준수하되, 원유를 생산하는 젖소 농가의 경우 젖소 적용대상 살충제 9종 이외에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등 유의사항도 안내하였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지자체 및 농가에 “일제 방제소독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이번 기간 중 매일 모든 농가가 동시에 참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담당자	사무관	서두석 (044-201-2535)

